

I. 시작하는 말

성막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강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동문부터 시작해서 번째 단, 물두멍 그리고 떡 상, 등잔대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분향단까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방법과 힘을 낼 수 있는 떡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등잔대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과 방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공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들을 매주일마다 먹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I. 중심 말씀

1.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바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떡을 먹고 등잔대의 빛의 조명을 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분향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제사장은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가지 의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과 위치와 상관없이,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제사장은 어떤 상태였어도 아침과 저녁으로 절대 향을 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위치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끊으면 안됩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시 향을 피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2.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하라고 합니다. 골방을 묵상하다가 지성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바로 골방인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대변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3.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상함심령으로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없으면 안된다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 이시라는 마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매 순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우리 매 주일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321)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예수가 함께 계시지(찬325)

- 1) 예수가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 이세상사는 동안에 주이름전파 하면서 무한한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 이세상친구 없어도 예수는나의 친구니 불의한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 주께서심판 하실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사랑에 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